

구조

주요 등장 인물

코르누코프 (Kornukov) - 아나톨리 코르누코프 장군, 당시 소콜 공군기지 (사할린 소재) 사령관. 1998년 1월 22일 당시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코르누코프를 러시아의 신임 공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게라시멘코 (Gerasimenko) - 지휘관 대리, 41 비행 연대

노보셀레츠키 (Novoseletski) - 스미르니크 공군 기지 전투기 사단 참모장 대리

티토브닌 (Titovnin) - 오시포비치 소령의 비행 관제관, 전투기 사단의 전투 통제실 소속

스트로고프 (Strogov) - 극동군관구의 부사령관

카멘스키 (Kamenski) - 극동군관구 공군 사령관

보여지는 시간들은 협정 세계 표준시 (UTC) 에 따른 것이다. 1983년 9월 1일 이른 아침, 사할린 영공이었다.

다음은 Rescue 007 (한글판: KAL 007 풀리지 않는 의혹들) 이란 책의 65-68 (책과 약간의 차이는 있음, 한글본 75-78) 페이지를 인용한 것이며, 러시아어 사본은 1993년 ICAO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해설 제공-버트 솔로스 버그

KAL 007 이 수면에 내려앉은 지 2분 내에 실제 착수 지점인 모네론 섬으로 최소한 소련 구조대 두 팀이 파견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소련군 지상 무선 교신 전사 기록에 남아 있다. *KAL 007* 위치가 아주 분명한 걸 보면 구조 작전의 성공을 의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구조 헬기, 국경 경비대 그리고 *KGB* 가 참여한 첫 번째 구조 임무가 하달된 시간은 오전 6시 47분이었다. 미사일 폭발 21분 후이며, *KAL 007*기가 고도 영점 아래로 내려간 지 9분 후였다.

노보셀레츠키: (18:47)

거기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가?

티토브닌:

예. 30분은 더 있어야 할 겁니다.

노보셀레츠키:

모든 헬기를 준비시켜. 구조 헬기 말이야.



Mi-8 multi-purpose copter. Type used for SAR missions

티토브닌:

구조라고 하셨습니까?

노보셀레츠키:

그래. 목표물이 사라진 지역을 수색하는 임무가 부여될 것이다.

티토브닌:

알았음. 그쪽 수색 구조대에서 맡는 겁니까?

노보셀레츠키:

뭐?

티토브닌:

중령 동지, 그쪽 수색 구조대를 통해 그 임무를 차이카에 부여해 주십시오.
코무토보 (사할린 섬 남쪽 유즈노-사할린스크 (Yuzhno-Sakhalinsk) 시에 있는
군항 및 민항)는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닙니다. 노보알렉산드로프스카
(Novoaleksandrovskaya) 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권한이 없습니다.

노보셀레츠키:

알겠다.

티토브닌:

노보알렉산드로프스카와 코무토보에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국경 경비대와 KGB는 코무토보에 있습니다.

“차이카” 는 극동군관구 공군 지휘 본부의 호출 부호이다. 결국 기록에 남은

최초의 구조 임무는 소련군 극동관구 작전 지역에서 관할권 서열 2위인 극동군관구의 명령에 따라 수행된 것이다. 007기의 격추나 구조 명령은 일개 지역 지휘관 결정이 아니었다.

분명히, 사할린 중앙에 위치한 스미르니크 공군 기지 (전술 공군 사령부 소속-그 곳에서 미그 23기에 KAL 007 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와 사할린 남쪽에 위치한 소콜 공군 기지(오시포비치와 그의 SU-15의 본거지인 공군 방위 사령부 소속) 둘 다 당장 사용 가능한 구조 헬리콥터들이 없었다. 그래서 극동관구 공군 기지로 관할권 소속을 밝아 관할권 외의 코무토브 공군 기지를 활동에 나서도록 해야했던 것이다. 코무토보는 유즈노 (남쪽) 사할린 시에 있는 민간/공군 기지였다

두 번째 임무에는 국경 경비대 뿐 아니라 모네론 섬 근처에 있던 민간인 선박도 참가했다. 이 임무는 6시 55분에 내려졌다. 미사일이 폭발한 지 29분 후, KAL 007이 고도 영점 아래로 내려간 지 17분 후였다.

(KAL 007이 모네론 해상에 착수하기 전 적어도 하나의 소련 해군 구조 임무가 내려졌다는 사실은 다음에서 확인된다- 이는 구조 임무에 참여했던 소련 해군 전문가가 "이즈베스티야" 관영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한 증언이다: "비행기가 공격당했고 거기에 무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언제 추락해 내려올 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박들도 그 가능 (강조적인 톤으로) 지점으로 오도록 명령받았죠. 몇몇 선박들은 가장 빠른 속도로 즉시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스트로고프 (Strogov) 장군: (18:54)

들리나.. 들리나, 티토브닌... 너 정말... [욕설] 네 놈을 영창에 처 넣을 테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티토브닌:

장군 동지, 여기는 모두가 바쁩니다.

스트로고프:

네 놈들 거기 바쁠 것 하나도 없어. 바쁘다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코르누코프는 어디 있나?

티토브닌:

코르누코프 장군은 여기 있습니다.

스트로고프:

연결해.

티토브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카멘스키 장군에게 보고 중입니다, 장군 동지.

이것은 KAL 007 기의 피격과 승객 구조가 지역 사령관의 결정이 아니라

소련군 최고위층에서 내려진 결정 입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스트로고프: (18:55)

그래, 지금 네가 할일이 있다. 그러니까 연락해서... [육설], 이 선박들에 연결해서, 이들, 이들은 뭐라고 ... [육설]?

티토티:

국경 경비대 말씀입니까?

스트로고프:

뭐?

티토티:

국경 경비대 말씀입니까?

스트로고프:

글쎄, 민간인 선박들 있잖아.

티토티:

알겠습니다.

스트로고프:

국경 경비대도 보내. 모넨 섬 근처에 지금 배가 있나? 민간인 선박이라도 좋으니, 그 쪽으로 바로 보내.



스트로고프가 지목한 장소와 코르누코프가 말한 장소가 같다는 데에 주목하라. 두 장군 모두 "모넨" 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모넨 근처에" 있던

선박들은 11마일 떨어진 지점이 아니라 모넨 섬으로 보내졌다. 이 사본은 공해 상 여러 지점에서 행해진 그들의 수색/구조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소련측의 기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첫째 날부터 계속된 소련측의 주장 - 비행기가 어디로 내려갔는지 알지 못했다는- 이 거짓 입을 드러낸다. 이 거짓 증언 첫번째 옹호자 중에서 U.S.S.R 참모장인 마살 니콜라이 오가르코프는 1983년 9월 9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것 [KAL 007] 이 떨어진 지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국 (그리고 세계 각 국은 이 문제에 있어) 효과적으로 비극적으로 기만당해 왔다!



Marshal Nikolai Ogarkov during his September 9, 1983 press conference on the shootdown of KAL 007. Ogarkov gave a good performance, but his remarks were a coverup from beginning to end.

Source: www.cia.gov

Titovnin:

알았습니다, 장군 동지.

기록에 남은 공인된 이 두번째 구조 임무 또한 소련군 최상위층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스트로고프 장군은 극동군관구 사령관인 이반 모이세비치 트레차크 (Ivan Moseivich Tretyak) 장군 예하에 있었다. 극동 작전 지역 총사령관 블라디미르 고브로프 장군은 바로 이 트레차크 장군과 함께 '침입 비행기'를 격추하는데 동의했다.

ICAO 1993년 보고서에 첨부된 지상 무선 교신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화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음)가 6시45분에 기록되어 있다.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무기 사용은 최고 명령선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이반 모이세비치 장군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들립니까, 들립니까.”

“다시 말하라.”

“지금 잘 안 들린다.”

“이반 모이세비치 장군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들립니까, 들립니까, 들립니까.”

“그래, 들린다.”

“이반 모이세비치 장군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레차크 장군님.”

“알았다, 알았다.”

“장군님의 명령에 따라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General Ivan Mosevich Tretyak
Used with permission, www.peoples.ru

Rescue 007 (한글판: KAL 007 풀리지 않는 의혹들) 114-115 쪽 (책과 약간의 차이는 있음, 한글본 137-139) 에서:

"CIA" 공화당 직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 증거는 '민감한 특별 정보 (NSA 감청) 에서 나온 것이다: KAL 007 격추 약 네 시간 후 소련 공군 방위 사령부 지휘소들은 격추된 비행기가 미군 RC-135 정찰기가 아니라 민간 여객기라는 조종사들의 보고를 올렸다. (지휘소들은) RC-135를 추락시키기 못했다는 것과 미국인들을 죽인 것에 대해 미국이 비난할 거라며 유감을 표했다.

CIA 보고서는 상공에서 날던 조종사들이 어떻게 승객 중에 미국인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묻는다. KAL 007 이 바다에 착수해 있을 때 보잉기 앞머리 부분의 특징적인 볼록한 모습을 보고 민간 여객기라고 결론지었을 지도 모른다. 1983년 당시에는 군용으로 사용된 보잉 747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시 대한 항공(Korean Air Lines) 의 꼬리 부분에 있던 새 모양의 엠블렘-당시 대한 항공 상징-을 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승객의 국적을 알 수는 없다. CIA 보고서는 소련 조종사가 미국인 사망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무선으로 정보를 듣는 것 뿐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소련 조종사들이 상공에서 KAL 007 기 일부 승객이 미국임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피격 후 바다에 불시착한 비행기에서나, 구명 보트, 아니면 소련 구조 선박들로부터 미국 정보부에서 감청하지 못한 긴급 무선 교신 내용을 들은 것이 분명하다.” ("CIA" 공화당 직원 연구보고서, pg. 47)